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18	01. 25	02. 01
대 표 기 도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윤미경 자매	정환영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요

1.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신년 기도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 청년회 총회 결과 - 회장 최상우 형제, 부회장 공지원 자매, 총무 이예준 형제
5.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교회 Spenden 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시요.
6. 우크라이나 750유로, Rotes Kreuz 335유로 송금했습니다.
7.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62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1 : 1 - 2(구p1274) (Amos 1:1~2)	이윤선 성도
특별찬송 Sonderlied		정환영 형제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아모스서는 번영과 종교적 열심 속에 안주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 공의, 순종, 그리고 회복에 대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1. 열방과 언약백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암1~2장에서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희만 알았으므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벌하겠다”(암 3:2)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신 분이 아니라, 열방과 언약백성 모두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특권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2. 형식적인 신앙을 미워하시고 삶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예배의 부재가 아니라, 삶과 분리된 예배이다. 이스라엘은 절기와 제사, 찬송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의와 공의는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암 5:21-2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이며, 고백이 아니라 삶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

3. 피할 수 없는 심판 너머에 들려오는 회복의 은혜의 음성

암9장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다(암 9:11-15). 이 회복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며, 회개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실제 삶의 선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2. 언약백성다운 모습을 어떤 부분에서 증명할 수 있나?